



백화점업계
고객이탈 '적신폭'
초개인화 나서
L1

metro®

Life

국내 제약바이오
고령화·만성질환
일본시장 노린다
L2



“절박한 상황 속 도움의 손길… 일상 속 구조에 보람 느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송파소방서

조현 소방관

송파소방서 진압대 소속 5년차 소방관 대학시절, 119 구조대 대처에 감동받아 군 특수부대 복무, 소방 특채조건 갖춰

변칙 상황 많아… 강도 높은 훈련 받아 무모한 진입보다 안전·정확한 진입 배워

구조는 물론 공감·안심시키는 일 중요 거창한 구조보다 작은 출동 기억에 남아 사소한 순간에도 꼭 필요한 존재 될 것



조현 소방관이 레펠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소방서 직원들이 화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곧장 자리에 일어나 소방차로 달려간다. 이동 중 무전기에서는 지시가 들려온다. 큰 화재 아니길, 부상자는 없기를 간절히 빌며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간다.

서울 송파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 소방관은 진압대 소속으로 올해로 5년차 소방관이다.

조현 소방관은 “현장출동하게 되면 소방관들은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로 각기 역할을 나눈다. 불을 끄는 사람, 문을 따는 사람,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 모든 인원이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압대는 불을 끄는 일뿐 아니라, 수관을 연결하고 옥상문을 개방해 연기를 배출하는 작업도 맡는다. 기본 매뉴얼은 있지만 현장이 위험한 만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이 소속된 송파소방서에는 약 330여명이 근무중이다. 근무 특성상 24시간 교대하지만 근무 인원만 90여명에 달한다.

조현 소방관은 “하루 출근하고 이틀 쉬는 근무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여유가 있어 보여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출동이 반복되면 피로 누적이 심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훈련을 더욱 강도 높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은 처음부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꿈꿨던 것은 아니다.

조현 소방관은 “대학생시절 우연히 행사장 아르바이트를 가게 됐는데 동료 여성이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시간이 3분도 지나기 전 현장에 구조대원들의 신속하게 도착했다”며 “놀란 시민을 따뜻하게 안심시키고, 의연하게 대처하던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감동 이상으로 와닿았고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군 특수부대에서 전문하사로 복무하며 소방 특채 조건을 갖췄고 전역 후 본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면서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관들은 출동이 없을 때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다. 변칙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훈련 만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고, 나 자신과 동료들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훈련은 일상이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보고 대응 연습을 한다”며 최근에는 신속 동요 구조팀(RIT, Rapid Intervention Team)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고립됐을 경우, 별도 구조팀이 신속하게 투입되는 훈련이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왼쪽)이 훈련 후 동료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파소방서

이어 “현장에서도 항상 동료들이 대기하고 있고, 본인 위치를 무전으로 알려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훈련을 꾸준히 훈련하고 있다”며 “위험한 현장을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장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은 소방관의 업무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출동하면 소방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신고도 있다. 그렇다고 볼 평할 수는 없다. 그분들은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가려고 신고자들은 안심시키려고 공감을 한다”며 “드라마처럼 극적인 구조 장면보다, 일상의 작은 긴급 상황을 다정하게 마무리하는 일이 오히려 소방관의 일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가장 보람찬 일이 언제냐는 질문에 거창한 구조 상황보다도 작고 일상적인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관내, 서울시에서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형화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화재를 진압했어’ 라는 뿌듯함보다는 부상자들과 사망자들에 미안한 감정이 더욱 클 것 같다”며 “오히려 작은 출동들이 기억에 더 남는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이 건네는 ‘정말 감사하다’ 뒤 미안한 미소, 방에 갇힌 시민 구출 후

감사하다는 악수 등 사소해 보여도 그분들에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자부심이 자 보람이다”고 말했다.

소방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아얏 있는 게 지겹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잘 맞는 직업이다. 드라마 속 하이 라이트 장면만 보고 환상을 갖기보다는, 일상의 반복 속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맞는 직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순직’이라는 질문에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땐 죽음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결국 죽음은 본인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며 “그래서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죽는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은 오늘도 장비를 점검하고 벨 소리를 기다린다.

“불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할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다.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일, 그게 소방관이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삼성-키움전에 만원 관중…고척돔 개장 이래 최다 16회 매진 ‘신기록’ /사진 뉴시스
▲‘빅리그 복귀 준비’ 김하성, 트리플A 재활경기서 볼넷만 2개…타율 0.190

▲포그바, 약물 징계 끝내고 AS모나코 입단…2년 계약 체결
▲생활체육 농구 등록 인구 1만명 돌파…농구협회 “5년 이내 10만명 목표”

▲박영규, KPGA 군산CC 오픈 최종 라운드서 홀인원 기록
▲日 열도까지 소문난 성심당…“빵 때문에 대전까지”